

원 폭

그것은
오래 오래 전의
어떤 여름 날
힘들고 싫은 기억

혼다 치토시(本田千年、당시 14세)

“살려줘!..... 누가 좀 살려줘!...”
꺼져가는 목소리로 누군가가 외친다. 야마모토 씨가 아니었을까...
지금도 이 귀속에 그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1년 전인 1945년 8월 9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속에, 아니 지금부터 살아갈 생활 속에 가장 슬프고 괴로우며 기억하기 싫은 일이고 잊혀지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8월 9일 이날은 한여름의 뜨거운 날이었지만 구름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무더위가 기성을 부려 짜증이 났던 하루였어요. 8월에 들어서면 매일 이런 무더위가 계속되었어요. 이날도 늘 아침부터 있었던 것처럼 공습경보 사이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7월 29일과 8월 1일 연속해서 나가사키 조선소를 포함해 큰 공장이나 마을의 집들이 폭탄으로 부서져 버려 공습에 대한 공포는 충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반사적으로 방공호로 뛰어 들어가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8월 1일에는 근처에 건설회사가 있었는데 그곳에 폭탄이 떨어져 목재가 하늘로 높이 날아 올랐어요. 그 중에 전봇대같은 나무기둥이 우리집 지붕에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는 수리할 시간도 없었어요.

운명의 8월 9일. 그날 아침 공습경보는 걱정할 정도의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경보가 해제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는 원자폭탄을 실은 B29기가 나가사키 상공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뭔가 폭음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했을 때,

번쩍하며 청백색, 아니 새빨간 빛이 지나갔습니다. ‘뭘야! 뭘가 일어나거지...’

잠시후 엄청난 폭음이 울렸으며 폭탄의 강력한 힘이, 폭풍이 나가사키의 대부분을 날려 버리고 쓰러뜨렸으며 강한 열은 사람들을 산 채로 태워 숯검덩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시간은 오전 11시 2분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날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날 내 집에는 동경에 있던 형이 돌연 휴가를 받았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매우 기뻐하며 형을 중심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 동생, 내가 둘러앉아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형이 오랜만에 돌아왔다고 점심은 뭔가 맛있는 것을 만들겠다고 아는 가게에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 무렵 나는 14세의 중학생이었습니다. 전쟁이 격해지자 공장으로 전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날 오전은 학교, 오후에 공장을 가야했습니다. 아침부터 공습경보도 울렸고 형도 돌아와서 천천히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 학교에 갔었다면 이렇게 여기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빛과 진동을 들은 후 집 안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집은 부서졌으며 동시에 모두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마라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생들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괜찮아질거야’, ‘조금만 참으면 돼’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만 가득했습니다. 잠시후 주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무참하게 부서지고 기와와 유리 등으로 어지러져 있었습니다. 늘 있던 공습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자기 짐을 챙겨 빨리 피난을 가자!”

짐을 챙기고 있는데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신발을 신을 틈도 없어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주위의 모든 집들이 무너지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옆집 아저씨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전신주야 집 등 여기저기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빨리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있고 옷은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안부를 물으며 방공호쪽으로 속히 피난을 갔습니다.

알고 지내는 아주머니 집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안에서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버지는 무언으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늘 나를 귀여워해 주었던 아주머니였습니다. 모든 집이 무너지고 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집에 깔려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살릴 방법이 하나도 없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회사로 가는 사람, 피난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는 사람, 몸전체가 타버려 시커멓게 변한 사람,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어 있는 사람... 충격으로 머리가 돌아버린 여자가 아이를 안고 뭔가 중얼거리며 걸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위에서는

“??? 마을은 어떻게 됐어요?”

“우라카미역 주변은요?”

“???야!”하며 아이 이름을 부르며 뛰어가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갑자기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였는데 흰옷은 벌겋게 피로 물들여져 있고 유리조각이 몸에 박혀 있었는데 도중까지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갔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에는 죽은 시체들이 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강가에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사람, 오염된 물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 열이 난 몸을 식히려는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고통과 열 등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지옥의 모습입니다. 깨지고 갈라진 유리 파편들 위를 맨발로 달렸습니다. 방공호에 이르렀지만 앞에 있던 건물이 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과 의논하여 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집들이 무너져 산으로 가는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른의 뒤를 밟으며 걸어갔습니다. 무너진 집의 지붕을 걸으며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면 걸어가던 지붕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걸어가기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디를 어떻게 걸어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쉴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주위는 밀감밭이었습니다. 안심을 하자 뭔가가 몸을 짓누르는 것처럼 저는 주저 앉으며 스르르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들자 주위는 어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나가사키의 밤은 새빨간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무말도 하지 못한 채 모두들 굳은 표정으로 불 뿐이었습니다. 왜 이런 참화를 겪어야 하는지 몰

랐습니다. 이것이 원자폭탄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문득 누나가 어떻게 됐는지, 우라카미 쪽은 모두 불타 버렸다는 데 죽은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어 불기운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산 아래의 방공호로 가자며 아버지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터널처럼 되어 있는 방공호에 가자 앞에 있었던 건물은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방공호 안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 몇 명이 누워 있었는데, 조금 무서워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여름의 태양은 어제와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처럼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그쪽을 보자 누나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방공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 모두는 소리없이 울었습니다. 모두들 기쁘기 때문이지요. 잠시후 모두들 배가 고프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제 점심, 저녁, 그리고 오늘 아침, 점심을 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후에는 주먹밥이 왔다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달콤한 주먹밥을 양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와 형도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어제 저녁에 만든 주먹밥은 그 사이 쉬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배가 고프나 나머지 그것을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친구분이 주먹밥을 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맛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하느님처럼 보였습니다. 배가 부르자 집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지나가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채 그대로 뒹굴고 있었습니다. 피난가는 도중에 그 자리에 쓰러져 꿈쩍도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시꺼멓게 타 버린 시체, 남녀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변해버린 시체, 눈은 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사람, 어린 아이를 업고 그대로 죽은 사람 등등.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 괴롭워!”

“아, 아파!”

“물, 물을 줘!”

지금도 머리 속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멈춰 버린 전차도 병원도, 약국, 고양이, 개, 말 등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타버린 채 그대로였습니다. 우리집은 밤을 짓는 철가마만 남아 있을 뿐 전부 타버렸습니다.

8월 11일

이나사 초등학교가 병원으로 바뀌었다고 해 가 보았습니다. 치료를 위해 교실 곳곳에 환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많은 환자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는 바람에 저는 그 사람들을 밟을 뻔했습니다. 정말 지옥이 따로없는 곳이었습니다. 뭔가 흰 약을 몸에 바르고 누워 있는 사람을 보며 뭔가 해 주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상처에 흰 뭔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더기였는데 화상을 입은 상처가 썩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이상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족과도 만나지 못하고 이대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나는 건강하게 돌아왔지만 수일 후,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높은 열로 고생하였지만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견뎌 끝에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도 그 후 상태가 나빠져 왼쪽투하 3년 후인 1949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51년 전의 8월 9일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그날 한 발의 원자폭탄으로 일순간 73,884명이 목숨을 잃고 74,90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왼쪽으로 인한 장애로 고통받다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나가사키는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을 모릅니다. 왼쪽의 무서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남겨진 자료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듣는 길 밖에 없습니다.

평화공원 한 쪽의 <평화의 샘>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이 마려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물에는 기름같은 것이 덮여 있습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

결국 그 기름진 물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피폭을 입은 사람들은 물을 찾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물을 마시고 싶어했는지 모릅니다. 기름이 덮인 물을 그대로 마실만큼 힘든 고통 속에 죽어간 사람, 그런 물조차 마시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 그대로 원폭의 열로 인해 타 버린 사람 등 전부 슬픈 일입니다.

올해도 8월 9일이 찾아옵니다.

저의 가장 싫고 슬프고 힘들고 외로운 날입니다.

평화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전쟁만큼은 안됩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언제까지나 가지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짓을 두번 다시 하지 말도록 강하게 마음 속에 새기며 그 날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 평화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원합니다.

1986년 8월 9일